

# 돼지 일본뇌염 발생주의보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모기가 옮기는 돼지 일본뇌염 발생주의보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돼지 일본뇌염은 작은 빨간집 모기가 병을 옮기는 전염병으로 임신한 돼지가 유산을 하거나 죽은 새끼를 낳는 등 번식장애를 일으켜 양돈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질병일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염되어 뇌염을 일으키므로 공중보건위생상 매우 중요시 되고 있는 전염병입니다.

농촌진흥청 수의과학연구소에서 매년 양돈농가가 출하하는 돼지를 대상으로 일본뇌염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월 이전에는 항체 양성이 낮으며 모기 발생 상황 등으로 보아 일본뇌염은 7월 이후에 많이 감염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종부시키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6월 중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모기구제를 철저히 하면 일본뇌염에 의한 번식장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발생시기

○우리나라와 일본을 위시한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병원체는 일본뇌염바이러스이며 돼지에서는 번식장애를 일으키고 사람에게는 뇌염을 일으킨다.

○돼지 일본뇌염은 작은 빨간집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7~8월경이며 거의 모든 돼지가 뇌염바이러스에 감염된다.

○일본뇌염에 감염된 돼지의 유산 및 사산은 8~11월사이에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경산돈보다 초산돈에 많이 나타난다.

## 2. 주요증상

○대부분의 돼지는 뇌염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초임돈이 감염되면

약 40% 정도가 유산 및 사산하게 되며 경산돈은 유산, 사산 등의 발병률이 낮다.

○한배 새끼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시기에 따라 크고 작은 것이 있다.

○일본뇌염에 감염된 돼지가 분만한 새끼중 일부는 경련, 마비, 선회 운동 등의 신경증상을 보이다가 죽는 것이 특징이다.

○수태지가 감염되면 교환염으로 정자수의 감소, 기형정자의 증가로 수정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액속에 뇌염바이러스가 들어있을 수 있으므로 번식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3. 예방대책

○돼지 일본뇌염을 일단 발병후에는 치료가 되지 않으므로 모기가 발생되기 전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방법이다.

○백신접종

- 뇌염모기가 발생하기 전에 2~4주간격으로 2회 예방접종을 한다.

1차 접종 : 5~6월에 예방약 1ml를 근육 또는 피하주사

2차 접종 : 1차 접종 2~4주후 예방약 1ml를 근육 또는 피하주사

- 접종대상 : 후보돈 및 초산돈으로 반드시 2회 접종을 해야 하며 경산돈과 종모돈은 매년 1회 접종해야 한다.

○돈사 내외를 항상 깨끗이 하여 모기 발생을 막는다.

○모기 구제를 위해 정기적으로 저독성 살충제를 뿌린다.